

10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6299.66 (+40.89)		854.47 (+55.66)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3.778 (+0.032)		1418.75 (+2.65)

달러값 ‘뚝’… 1300원 환율 기대감

‘美 고용둔화’ 금리인상 가능성 ↓
달러값 8주만에 최저수준 하락
지난달 1600원 바라보던 환율
이달들어 1400원대 초반 안정세

달러값이 8주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미국 내 고용지표가 크게 둔화하면서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한 영향이다. 달러값이 하락한 가운데 원화값은 빠르게 상승하면서, 지난달 달러당 1550원을 넘었던 원·달러 환율도 1400원 수준까지 하락(원화 가치 상승)했다.

◆ 달러값, 8주 만에 ‘최저’

10일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 지표인 달러인덱스(DXY)를 산정하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ICE)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 장 마감 당시 달러인덱스는 99.54로 집계됐다. 일간 증가를 기준으로 같은 수준을 기록했던 6월 16일 이후 약 8주 만의 최저치다. 7월 27일의 101.54와 비교해선 약 1.97% 하락했다.

최근 달러값 하락 배경은 미국 내 고용지표가 둔화하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져서다.

미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은 지난 7일(현지시간) 7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만3000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다우

존스가 집계했던 전망치인 8만3000명 증가를 큰 폭으로 하회한 수준이다. 앞서 발표됐던 5월·6월 고용도 각각 12만9000명에서 6만3000명으로, 5만7000명에서 2만명으로 하향 조정됐다.

고용률은 미 연준이 기준금리 및 통화정책 결정에 중요하게 고려하는 핵심 지표다. 고용이 과도하면 금리 인상 압력이 커지는 반면, 고용이 둔화하거나 부진하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빠르게 낮아진다.

시장에서는 오는 12일(현지시간) 발표되는 7월 CPI에 주목하고 있다. 6월에 이어 7월에도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

◆ 원화값은 ‘역대급 상승’

금리 전망 변화로 달러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원화값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달 달러당 1550원을 넘기며 1600원을 바라보던 환율은 이달 들어 1400원대 초반까지 하락하며 1300원대 진입을 목전에 뒀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 중간종가(오후 3시 30분 가격)는 달러당 1418.3원을 나타냈다. 전 거래일 증가보다 2.3원 올랐지만, 달러당 1400원대 초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 7월 2일 종가인 1555.8원과 비교해선 5주만에 137.5원(8.83%) 급락했다.

최근 환율이 빠르게 하락(원화값 상승)한 것은 강달러 기조가 진정되며 수출기업의 환전 규모가 늘어난 영향으로 원·달러 수급 불균형이 해소된 영향이다. 특히 지난달 미 증시 시장으로 ‘통화스와프 급’ 달러자금을 조달한 SK하이닉스의 달러 매도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원화값을 빠르게 끌어 올렸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달러의 약세 요인이 뚜렷하고, 원화값의 강세 흐름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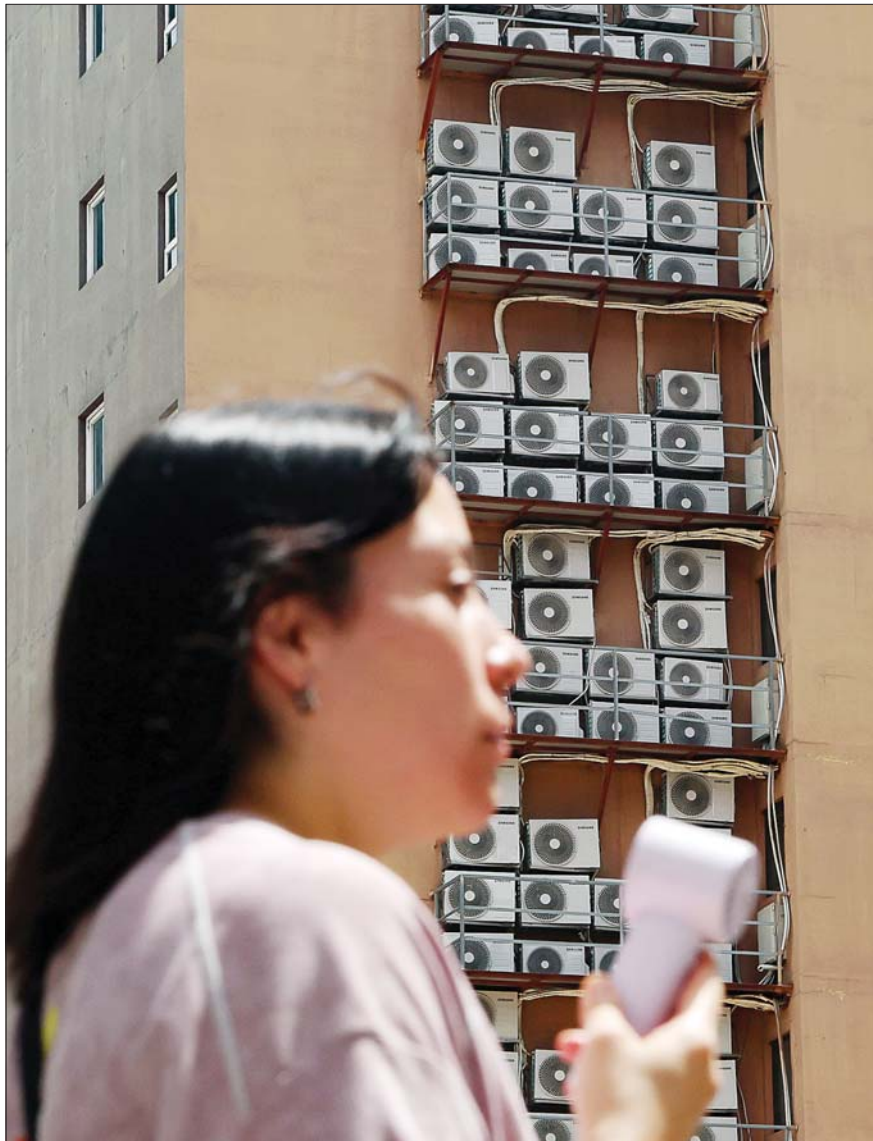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위원은 “미 고용지표 부진으로 9월 FOMC에서의 금리인상 확률이 낮아진 가운데 이번 주말 발표될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라며 “7월 소비자물가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 9월 금리 동결 전망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난 4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이례적인 원화 언급과 함께 달러 약세 흐름으로 원·달러 환율도 급락하면서 원화의 상대적 강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라면서 “7월 미국 소비자물가에 따라 원·달러 환율의 1300원대 진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연일 폭염… 전력수요 역대 최대치 근접

전력 없는 폭염이 이어지며 최대 전력수요가 연일 치솟고 있는 가운데 10일 서울 도심의 한 건물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돼 있다. 지난 7일 최대 전력수요는 95.3GW(기가와트)를 기록해 역대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공급예비율은 전력 당국의 통상적인 관리 기준인 10%를 밑도는 9%까지 떨어졌다. /뉴스

전력 없는 폭염이 이어지며 최대 전력수요가 연일 치솟고 있는 가운데 10일 서울 도심의 한 건물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돼 있다. 지난 7일 최대 전력수요는 95.3GW(기가와트)를 기록해 역대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공급예비율은 전력 당국의 통상적인 관리 기준인 10%를 밑도는 9%까지 떨어졌다. /뉴스

“삼성전자, 올해 주주환원 최대 200조”

3년 쌓은 잉여현금흐름 50% 환원
KB증권, 기존보다 10배 이상 확대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초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보너스 배당 좀 두둑하게 나올까요?”(40대 주주 김모씨)

삼성전자가 최근 ‘반도체 업황의 주기적 위험에 대응하고 성장 동력에 투자하기 위해 건전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며 “조만간 세부 내용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동학개미(국내 주식 투자자)의 관심이 특별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에 쏠리고 있다. 특별배당은 정기 배당 외에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일종의 ‘보너스 배당’이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가파른 실적 개선과 강력한 주주환원 의지를 근거로, 올해 총 배당금이 20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과격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시즌1’을 시작으로 3년 단위 주주환원 정책을 운영해 왔다. 핵심은 3년 동안 발생한 잉여현금흐름(FCF)의 50%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FCF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에서 설비 투자나 인수·합병(M

&A)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은 ‘회사 공간에 쌓인 자유로운 현금’을 뜻한다.

올해는 주주환원 정책 시즌4(2024~2026년)의 마지막 해다. 삼성전자는 이 기간 발생한 잉여현금흐름(FCF)의 50%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10일 KB증권은 삼성전자가 조만간 발표할 신규 주주환원 정책의 규모가 연간 최소 100조원에서 최대 2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연간 주주환원 규모인 9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확대되는 수준이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주주환원 규모가 최소 100조원으로 결정되더라도 현 주가 기준 배당수익률이 7%를 웃돌 수 있다”며 대규모 주주환원이 주가 재평가를 이끄는 핵심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적은 지난해 4분기 이후 오는 3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KB증권은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17% 증가한 1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영업이익률은 55%로 예상했다.

〈2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



metro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전 넘어 전격전”

李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2차 회의
“광주 기지 기능 2028년까지 옮기고
관련절차 동시다발적 추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조속히 이뤄내야 한다면서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군) 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서 광주 군 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 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6일 1차 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 공항을 선정하고 속도전을 당부한 바 있다.

〈관련기사 3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며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 공항 인근의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속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

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며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서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부지와 기반시설이 중요하다”며 “전력·용수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서 관련 법령

의 제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언제나 첫 패달을 밟을 때 가장 힘이 많이 드는 게 법”이라며 “향후 1년을 골든 타임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돼야 한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부처 칸막이나 규제, 또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혹여라도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이거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총체적 점검이 필요한데 각별히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 지원에 더해 투자 성과가 전국·산업 전체에 확장돼야 한다는 목표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K자 성장, 즉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할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서예진 기자 syj@



metro



▲홍준표, 유승민 재기설에…“가장 큰 죄악은 배신, 지옥의 끝”
▲국힘 “추미애, 경기도 예산 낭비 밝혀야…이 대통령, 불리하면 입썩단” /사진 뉴스

▲김은혜 “6·3 지방선거 투표자수 조작 8개 지역 추가 발생…최소 4만표 이상”
▲합동참모본부, 韓·美 UFS연합연습 17~27일 실시

▲박지원, 황희 ‘페버스’ 논란에 “닥치고 사과해야”
▲조국 “수사권 없는 공소청, ‘범죄정보’ 수집 근거 없어”